Entertainment p/18

메트로 2014년 1월 6일 월요일 제2817호 www.metroseoul.co.kr

옆트임 드레스 '은근섹시'

Sports p/23

"러시아와 최소한 비겨야"

'수서발 KTX' 이르면 이번주 공식 출범

'민영화 논란'을 부른 코레일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수서고속철도가 이르면 이번주 인력을 확보하고 정식 출범한다. 대표이사는 김복환(60)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이 겸직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 초기 인력은 50명으로 대부분 코레일이 파견했으며, 코레일은 이르면 이번주에 파견 인사를 낼 예정이다.

임원은 김복환 대표이사를 포함해 4명이다. 상임이사인 영업본부장과 기술안전본부장은 코레일의 박영광 여객본부 여객수송처장과 봉만길 대전철도차량 정비단장이 각각 맡는다.

/윤다혜기자 yd@

엔저 악재에 '수출 코리아' 비상

김연아 국내무대서 '만점 리허설' 김연아가 '피겨 여왕'의 건재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5일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14'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김연아는 지난달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첫선을 보인 프리스케이팅 주제곡 '아디오스 노니노'를 보다 완벽하게 다듬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80.60)를 합쳐 역대 기간 통산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인 총점 227.86점을 거뒀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달러 약세, 엔화 가치 하락, 위안화 절상 압력 등 한국 경제가 이른바 '환율 마의 삼각지대'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며 수출이 주력인 국내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55.4원으로, 전년 말보다 15.2원 떨어지면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1.4% 절상됐다. 엔화의 경우 같은 기간 이미 23.6%나 절상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경제가 출구전략에 접어들면서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위안화마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상영·김민지기자 sjw@metroseoul.co.kr

이미 '세 자릿수' 연내 900원대 초반도 가능…자동차·철강 등 직격탄
정부 "환율 리스크 우리경제 최대 위협…시장상황 정밀 모니터링 착수"

이 같은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나 새해 첫 거래일이던 지난 2일, 환율이 급락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5년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 1040원대로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장중 최저 수준이다. 원·엔 재정환율도 이날 장중 100엔당 995.73원까지 하락했다. 지난 2008년 9월 8일의 998.7원보다도 낮은 수치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강세나 엔화 약세는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선 데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엔저·원고'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원·엔 환율은 테이퍼링을 결정한 미국과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일본의 통화정책 기조가 맞부딪치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화 강세는 수출 감소로 이어져 국내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 밖에 원화와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과 중국 방문자들이 많은 국내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애초 전망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지나친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환율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올해 엔이 달러당 1000원에 근접하고, 원고·엔저 흐름이 가속하면 100엔당 9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원화 강세로 수입 물가가 내려가면서 내수가 개선되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국외 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정부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처지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앞서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환율 전망치를 기존의 1060원대에서 1030원대로 낮춰 잡았다. 연구원은 올해 엔화 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10월의 9.5%에서 6.1%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도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외환·주식시장에서의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환율 변동성 확대는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변동성 확대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14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엔 환율 급락세를 예의 주시하고있다"며 "지금은 일단 지켜보는 시기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 측도 "엔화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제 금융시장에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원·엔 환율 움직임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철수 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5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웃고 있다 /뉴시스

결국 安으로 들어간 '安의 멘토'

윤여준 새정추 위원장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5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입을 발표하고 공동위원장에 임명했다.

윤 전 장관 영입은 지난달 8일 김효석 이계안 박호군·윤장현 공동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근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인사다. 그는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8월 초부터 윤 전 장관의 영입에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추는 윤 전 장관에 이어 조만간 추가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추는 8일 야당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신당 설명회를 이어간다. /조현준기자

새누리 '광역단체장 연임 2회 축소·구의회 폐지안' 곧 야권에 공식제안

지방자치 수술대 오르나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연임 2회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등 지방 자치와 지방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헌 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한다. 이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없지 않은 데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지방 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 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 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함께 클로즈드프라이머리(당원제한경선)도 검토 대상이다. /윤정훈기자 ●●●@metroseoul.co.kr

현재현 회장 등 4명 이번주 구속영장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핵심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번주 초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1조원대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9)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3명은 자신들이 경영한 회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 차입을 지원하고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회사채와 CP의 발행액은 총 2조원이 넘고 투자자들의 손실은 1조6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문제의 포탄 금형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수사관이 5일 국내 포탄 제조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업체로부터 압수한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날개 부분 금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에 넘어간 포탄 제조기술

760억여원 받고 불법수출 북한으로 빠져나갈 가능성

국내 포탄 제조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따르면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5)씨는 2010년 9월~2013년 12월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mm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생산설비와 완제품을 공급하고 도면과 공정도를 국방산업소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기술고문 강모(68)씨와 현지 공장책임자 오모(60)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현지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방법으로 760억원대 규모의 포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약 상대방인 미얀마 테인떼이 장군이나 업체 아시아아메랄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로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었다"며 "관련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포근한 소한 붐비는 스케이트장 소한인 5일 추위가 누그러진 날씨를 보인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스케이트를 타며 주말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원유철, 경기지사 출마 선언… 새누리당 처음

●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여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 평택갑이 지역구인 4선 의원은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경기 도정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점을 강조했다.

이동관 전 수석 디지털서울문화대 총장 취임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문화·예술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다.

이 신임 총장은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언론특보, 대통령 언론문화특임대사 등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개혁' 감사원 칼 빼든다

30여명 차출 준비팀 운영 정부부처까지 포함해 고강도 감사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펙친다.

감사원은 5일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등에서 인원을 차출해 30여 명 규모로 감사준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팀이 꾸려지는 게 관례지만 이번은 통상 5~6명의 규모를 크게 웃도는 6배 가량이다.

또 공공기관감사국뿐만 아니라 금융과 건설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담당해온 산업금융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까지 총동원됐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특히 공공기관 감사의 경우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운영감사 방식으로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시에 감사에 착수하는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준비팀은 현재 담당 분야별로 3~4개로 조를 나눠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산천어축제 인파 "추워도 좋습니다"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 개막 이틀째인 5일 휴일을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 비웃는 대기업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 3131억 중 87%인 2721억 법원판결로 취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87%가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 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회사는 21곳이다.

공정위는 이 중 14개 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겨 승소율이 60% 후반대에 달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과의 소송 결과까지 합치면 승소율이 8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21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31억원이었는데 이 중 7개 회사에 대한 2721억원(86.9%)이 취소됐다. 특히 유동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에 내린 과징금 취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기업들이 공정위 고위직 출신 변호사와 고문 등으로 포진된 로펌의 힘을 빌려 공정위를 상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21곳 가운데 20곳이 이른바 '6대 로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회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태평양(5곳), 광장(4곳), 율촌(2곳), 세종(1곳)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 SK이노베이션과 계열사에 대한 1356억원,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754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다. 또 공정위가 예정이율 인하 합의를 적발해 보험사에 부과한 과징금도 수백억원 취소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다소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정부 사회보장비 OECD 꼴찌

경제활성화 비용은 1위

OECD 회원국 정부지출 비교 (출처:OECD '한 눈에 보는 정부')

사회보장 지출	%
덴마크	43.8
독일	43.3
룩셈부르크	43.2
핀란드	43.1
한국	13.1

경제활성화 지출	%
한국	20.1
아일랜드	16.4
헝가리	14.4
이스라엘	5.8
영국	5.1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꼴찌인 반면 경제활성화 비용의 비중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덴마크는 전체 지출 중 43.8%를 사회보장에 써 비중이 가장 컸다.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다.

한국의 경제 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이어 아일랜드(16.4%), 헝가리(14.4%) 순으로 비중이 컸고, 영국(5.3%), 이스라엘(5.8%), 덴마크(6.1%) 등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경제 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준기자

얼빠진 말년병장…세탁기에 소총 넣고 돌려

전역전날 손질 지시 짜증 민간인 됐지만 항명 기소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 개념 없는 행동으로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 소재 포병대대 소속의 최모 병장은 전역을 하루 앞두고 전투장비 지휘 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짜증이 났다. 전역 전날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고 여긴 그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옷가지로 감싼 뒤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하지만 세탁기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발견해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사건 다음날 최 병장이 예정대로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은 민간 검찰로 보내졌다.

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최씨가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면서 후회하고 있지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학력·학벌차별' 인권위 진정 3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1월에 학벌·학력 차별을 이유로 모두 11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는 2012년 같은 기간에 제기된 진정(45건)의 약 2.6배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 건수는 13건을 기록해 전년(5건) 대비 2.6배였다.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이 달라 차별의 대상이 됐다는 진정도 전년(2건)의 두 배인 4건을 기록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취업난으로 단기 계약직 인턴 등 비정규직 채용이 늘면서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학력·학벌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다혜기자 ydh@

"시민과 소통하는 '마부' 될 것"

박원순 서울시장 '2014년은 소통특별시 원년' 선포
복지예산 32%까지 확대해 '따뜻한 시정' 선물할 것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2014 갑오년의 화두를 '이통안민(以通安民)'으로 정하고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을 시정의 뿌리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직원 3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서울시 시무식을 열고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에 청마를 이끌어가는 마부가 되겠다"며 "서울시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시민의 내일을 든든하게 하는 시민의 마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예산을 32%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채무를 3조원가량 줄였다"며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9호선 민자사업, 뉴타운 정리, 세빛둥둥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서울의 난제들이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올해 서울이 '소통특별시'가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이 굳건한 뿌리가 된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어떤 정책, 어떤 행정이 펼쳐지더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 맞춤형 정책 개발 집중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공유 ▲계약정보 공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예산제 심사 과정 공개 등 시정을 공유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재정과 자치 사무 모두 20%에 불과한 2할짜리 지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참여 거버넌스 3가지 길을 통해 행정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변화시키고, 시민이 시장인 서울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내년 서울시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행정을 선사하기 위해 '소통'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도 소통을 통해 해결했다면서 "협력과 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올해도 화려한 도시의 외관을 꾸미는 전시성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은지 많은 사람들이 묻지만 이미 여러 차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면서 "대신 뉴욕, 파리, 도쿄 등 선진도시 시장들이 서울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민운동가였던 자신이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밝혔던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각오로 올해에도 시민들을 모시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변동 다음달 28일까지 신고해야

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달 28일까지 지난해 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9만 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예금·보험·증권·채권·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안행부는 3월 28일 재산 공개 대상자 1900여 명의 재산을 공개한다.
/김민준기자

"전 남편 돈 받아달라" 청탁 받고 납치 살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전 남편에게 준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40대 남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이모(27·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모(40·여)씨로부터 "전 남편에게 건넨 위자료와 매달 생활비 등 1억원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채모(40)씨를 흉기로 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채씨의 전 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서울과 수원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정모(27)씨와 유모(26)씨에게 일당을 주거나 빌려준 1000만여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다혜기자

겨울방학 청소년 휴카페 운영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휴카페' 23곳을 올해 초까지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19개소는 공간 인테리어, 기획부터 세부적인 운영방식을 지역사회 주민, 청소년들이 함께 조성했고, 4개소가 주민자치센터 등에 추가된다.

지젝교수 초청 경희학교 열어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 교수를 초청해 6~10일 집중강좌코스 '2014 경희 지젝 학교'를 운영한다. 지젝 교수는 '누가 미래 권지를 말하는가?' 등 주제로 철학과 정신분석학 등을 강의한다.

김태백 건보 서울본부장 취임

김태백 국민건강보험 제7대 서울지역 본부장 취임식이 2일 열렸다.

김 신임 본부장은 이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공단의 선진형 패러다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日 영해기점 280개 국유화

일본이 영해 기점인 외딴섬의 280개를 국유화할 방침이라고 5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야마모토 이치타 해양정책담당상은 "낙도 약 400개를 지난해부터 조사한 결과 약 350개가 무인도다. 국경에 있는 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인 없는 섬은 국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유화 이후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식 이름이 없는 섬 160개에 대해 현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고려해 이름을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국유화해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 해경선은 수시로 센카쿠 인근에 진입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그들만의 전쟁놀이? 4일(현지시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방기에서 프랑스 군인과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이 순찰을 돌던 중 총을 겨누는 모습을 마을 주민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바라보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난 3월 이슬람계 반군이 기독교계 정권을 전복시킨 이후 양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데니스 로드먼이 지난달 20일 평양에서 담배를 피우며 북한 농구단을 훈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로드먼, NBA 은퇴 선수들과 8일 방북 친선경기

케니 앤더슨, 클리프 로빈슨, 빈 베이커, 크레이 호지스, 덕 크리스티, 찰스 스미스…

전설적인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은퇴 선수들이 데니스 로드먼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다.

로드먼은 이들과 함께 8일 북한 평양에서 개최되는 미·북 친선 농구경기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맞아 로드먼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먼은 이를 '농구 외교'라고 일컫고 있다.

경기에 참가하는 뉴욕 닉스 출신의 스미스는 "로드먼과 나는 완전히 반대 성격이지만 협업은 잘한다"면서 "우리는 어디든 함께 여행했기 때문에 그가 북한을 처음 찾았을 때도 난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드먼은 이번 경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북한을 세 번째로 방문해 나흘간 일정으로 북한 농구팀을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국희기자 kmlee@

캄보디아 정국 '대혼돈'

총리 퇴진 요구 시위대 유혈진압 이어 야당 지도부에 소환장 … 시위 격화 우려

캄보디아 정국이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데 이어 법원은 통합 야당 지도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법원은 최근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삼랭시 등 통합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지도자 2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14일까지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소환장에서 CNRP 지도부가 범법 행위를 부추기고 심각한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몇몇 정치인이 정부를 모욕하고 인종을 선동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왕, 헌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앞서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3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근로자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4일에도 무장한 사복 경찰이 반정부 시위에 나선 근로자 500여 명을 강제 해산했다.

삼랭시 캄보디아구국당 대표

캄보디아 정부는 7·28 총선 이후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지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캄보디아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NGO)는 2015년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지난해 부정선거로 승리했기 때문에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역시 총선 당시 선거인 명부에서 125만 명의 유권자 명단이 사라지는 등 부정선거가 실시됐다고 주장하며 총선 재실시와 훈센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위로 생산에 차질을 빚던 캄보디아 진출 한국 봉제업체들은 정상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섬유협회는 "3일 조업률이 60%까지 떨어졌으나 4일에는 70%의 가동률을 보이는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놈펜 공단에는 한국섬유협회 소속 회원사 50여 개사와 비회원 업체 10여 개사가 입주해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日어린이들 붓글씨 자랑 새해를 맞이해 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서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직접 쓴 붓글씨 작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 한국여성 열차치여 숨져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또 다시 숨졌다.

지난 3일 오전 7시(현지시간)께 브리즈번 시내 캐넌힐역 인근에서 한국인 홍모(31·여)씨가 철로 건널목을 건너려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그자리로 숨졌다고 5일 보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홍씨는 철로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고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건널목을 건너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퀸즐랜드주 경찰은 "홍 씨가 워홀 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이른 아침 급하게 기차를 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46.14 (-21.05)	499.33 (+3.05)	2.87 (+0.01)	1055.00 (+4.50)

뉴스 & 뉴스

1만원이하 예금계좌 급증

● 잔고가 1만원 이하인 예금 계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중 은행 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은행의 수신 계좌는 2억1718만 좌로 상반기 중 954만8000좌가 늘었다. 특히 잔고가 1만원 이하인 계좌는 1억63만 좌로, 427만4000좌가 증가했다. 이로써 휴면 계좌를 포함한 잔고 1만원 이하 계좌의 비중은 49.1%에 달했다. /원관희기자

올해 은행 수수료 안 오를듯

●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던 은행들이 금융 감독 당국의 소비자 보호 방침안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은행들이 구조조정과 효율성 개선을 통한 수익 개선에 나서야 하며 고객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종 은행 수수료는 올해 동결될 전망이며 일부 수수료의 경우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현기자

한국재무 증가율 연 12%

● 한국의 국가 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에 근거한 올해 국가 채무 전망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 514조8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입 기반을 늘리고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국가 재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로또복권 제57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7	20	22	37	42	39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395,083,444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55,590,400
3등	5개 숫자 일치	1,446,84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91 3
부산광고문의 051)758-2900
독자센터 02)721-9785
2005년 1월 24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96

'세제 혜택 막달' 생애최초 주택대출 2조5000억

지난해 12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2조5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4.1 부동산대책의 세제 혜택 '막달 효과'로 분석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적은 총 2만5863건에 2조560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총액 8조6152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한 달간 2조원 이상 집행된 것은 지난 2001년 이 대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고 실적은 지난해 11월 1조4065억원이었다.

국토부 측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1주택자 주택 구입 때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 면제해주는 4.1 부동산대책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혜택을 누리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부동산 웃어야 코스피도 웃을 것"

금융가 사람들

집 거래 활성화 돼야 가계자금 증시로 유입… 반대의 경우 'D' 발생 우려

■대우증권 김학균 팀장

올해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더 오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김학균(사진)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2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계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계자산의 75%를 차지하는 부동산값이 하락하면 가계가 투자할 여력이 사라지게 된다.

김 팀장은 "과거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지만 현 상황에서는 거래가 살아나면서 시장에 돈이 한번 순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도 거래 활성화에 맞춰지고 있는 추세다. 김 팀장은 "그동안 집값 하락 우려에 집은 사고 싶지 못했던 거래자들이 매매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지난 11~12월 들어 집값이 소폭 오르는 등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는 신호가 감지됐다"며 "증시 측면에서 최근 수년간 주택 거래 위축으로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투자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장기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도 가계자금의 힘이 필요하다.

김 팀장은 "지난해 9~10월 외국인이 가장 강도 높은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국내 자금이 펀드 환매 행렬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가계자금이 펀드 등 주식투자 비중을 다시 확대해야 증시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가계가 주식투자에 나설 시 인덱스·상장지수펀드(ETF)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김 팀장은 "현 투자 시점은 고점 매수로 볼 수 있다"며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적립식펀드나 인덱스,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이 기대만큼의 회복을 보이지 못할 경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제시됐다.

김 팀장은 "한국 경제에 디플레가 나타난다면 재테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할 수 있다"라며 "물가 하락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에 접어들면 자산을 증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기자 h.kim@metroseoul.co.kr

'삼성 스마트홈' 상반기 본격 서비스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4'에서 삼성전자가 선보일 '삼성 스마트홈' 서비스를 모델이 시연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홈은 생활가전과 스마트 TV를 스마트폰·태블릿 PC는 물론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기어까지 통합 플랫폼과 전용 서버로 묶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안의 모든 기기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 상반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공

재벌총수들도 쇼크 주식가치 1조 증발

갑오년 들어 새해 첫날부터 증시가 급락하면서 재벌그룹 총수들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가 이틀 새 1조원 이상 증발했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총수의 상장사 보유 주식 가치는 3일 종가 기준 26조2937억원으로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의 27조4408억원보다 1조1470억원(4.2%) 감소했다.

총수별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주식가치가 가장 크게 줄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1조3043억원에서 3일 기준 10조7731억원으로 5312억원(4.7%) 사라졌다.

상장사 주식부호 2위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도 6조625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116억원(4.5%) 내려갔다. 현대차 주가는 22만4000원으로 작년 말보다 5.3% 하락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조4448억원으로 이틀간 보유 주식 가치가 1236억원(4.8%) 감소했다.

/이재영기자 ljy@

"어닝쇼크 전 팔자" 외인·기관 탓 코스피 쇼크

새해 증시 요동의 배경… IT·차 대장주 중심 매도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새해 벽두부터 국내 증시가 크게 요동쳤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각각 44.15포인트, 21.05포인트 하락하며 지수는 1946까지 밀어졌다. 이 기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300억원 이상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다. 기관 역시 3100억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특히 이들이 팔아치운 종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은 주로 정보기술(IT)과 자동차 대형주를 내다 팔았다. 현대차는 이틀간 5229억원 순매도됐고 삼성전자도 3752억원 매도세를 기록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KT,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도 각각 1128억~1842억원 순매도됐다. 기관 역시 삼성전자(1416억원)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이어 SK하이닉스도 13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처럼 삼성전자, 현대차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노출된 것은 실적 우려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악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8조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며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험적으로 4분기 어닝시즌에 일회성 비용 등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컸다는 점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 원화 강세 등 불리한 환율 변수가 이익 훼손 우려를 더욱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하나투어리스트
자유여행을 가장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하나 Free
자유여행만들기 항공+호텔
호텔팀장
"고객이 원하는 호텔은 어떤 호텔이든, 믿을 수 있는 최저가격에 제공하라~"
마케팅팀장
"고객들에게 최저가를 제대로 홍보하라! 최저가 아니면 300%를 보상한다"
항공팀장
"최고의 항공과 최저가격을 찾아라!"
최저가 300%
보상제실시
MISSION
3인에게 주어진 지상최대의 미션,
자유여행 최저가를 확보하라!
기간 : 2013년 11월 11일~2014년 2월 28일
자유여행 어디서 예약 할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구요?
하나 Free 〈자유여행만들기〉
항공 + 호텔에서
❶ 손쉽게 한 번 검색으로
❷ 항공과 호텔에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까지 한꺼번에!
❸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세요!
최저가 보상제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발생시, 차액의 300%마일리지보상

삼성 올해 첫 투자분야 '바이오'

바이오로직스에 대규모 투자 · 올레드 증설도

삼성그룹이 새해 첫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바이오 의약 분야가 대상이며 올레드(OLED) 신규 라인 증설을 위한 조단위 투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5일 이건희 회장이 신년하례식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투자액은 지난 2011년 42조원, 2012년 45조원에 이어 지난해 49조원대의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첫 투자 분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다.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가 다음달 각각 847억원씩 출자할 예정이며, 향후 4차례에 걸쳐 6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캠퍼스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은 1만5000ℓ급 바이오리액터(세포배양기) 10기를 갖추며 2015년 완공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2공장이 완공되면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업 설비의 3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스위스의 세계적인 바이오제약기업 로슈그룹 및 미국계 BMS 등과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또 충남 아산공장에 올레드 패널 양산을 위한 "A3(아몰레드3)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4.5세대 아몰레드 패널을 만드는 A1라인, 5.5세대 패널을 생산하는 A2라인에 이어 A3라인의 건물 외관을 완공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경기 화성 사업장에 증설하는 반도체 17라인에 2조2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내 중국 시안의 반도체공장을 완공하고 베트남의 모바일폰 2공장에 대한 투자도 진행한다.

/김태균기자 ksgs@

未분양 단지 핀 '美분양 꽃'

'건설사 무덤' 김포·용인·고양 등 전세난에 "사자" 수요 유입 효과

분양하는 단지마다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건설사들의 무덤으로 불리던 김포, 용인 등이 전세난의 영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서울과 가까워 출퇴근이 용이하고 서울 전셋값으로 미분양 아파트 계약까지 가능해 수요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다.

5일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경기지역에서 최근 1년간 미분양아파트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용인시로 나타났다. 무려 1753가구나 줄었다.

이어 식사지구·덕이지구 위주로 악성 미분양이 몰려있던 고양시가 313가구 줄었고, 김포시 252가구, 평택시 132가구, 하남시 108가구 순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인 이점과 아파트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혜택 등이 더해지면서 미분양이 크게 줄었다"며 "올해 매매시장 전망이 나쁘지 않고 전셋값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말 부동산114가 20대 이상 남녀 643명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명 중 7명은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때 무덤이라 불리던 김포, 용인, 하남 등에서 신규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남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미분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용인에서 4월 분양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역북동 '용인 역북 우남퍼스트빌'은 전용면적 59~84㎡, 914가구 규모다. 서천동 '용인 서천 아이파크'는 주택형과 전체 가구 수가 아직 미정이다.

GS건설은 김포시 장기동에서 오는 3월 3603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 '한강 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김포에서는 지난해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풍무동에 공급했던 김포풍무 '푸르지오센트레빌' 2차분 2000여 가구도 공급 계획이 잡혀 있다.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 지역주택조합 '하남 더샵 센트럴뷰'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전체 672가구 규모 중 4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또 일신건영은 2월 위례신도시 하남권역 A2-3블록에서 '위례신도시 휴먼빌'을 공급할 예정이다. 총 517가구 규모다.

/이정우기자 ssol820@metroseoul.co.kr

브레이크 없는 미친 전세… 71주 연속 상승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 전세 시장이 전주 대비 0.1% 상승하며 7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밝힌 가운데 5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 지역에 전세와 매매 시세표가 붙어있다. /뉴시스

중성장시대…바이플레이션 우려

현대경제연 '10대 트렌드'

한국 경제가 중성장 시대에 진입한다. 스마트 소비가 뜨고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에서 예상되는 10가지 트렌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가 평균 2% 성장률에 불과한 저성장기를 벗어나지만 과거 고성장기보다 낮은 3%대 후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중성장 시대의 특징으로는 제조업 수출에서 내수·서비스업으로의 무게중심 이동, 가계 소비의 더딘 회복, 기업의 투자 여력 미흡 등을 꼽았다.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을 추구하는 '스마트 소비'도 확산될 전망이다.

주택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된다.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의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근로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퍼플칼라(purple collar)'도 늘어날 예정이다. 이밖에 제조업 한류의 개막, 서비스업 명품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의 제도 악 위보가 필요한 사회,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등도 10대 트렌드에 이름을 올렸다.

/서국진기자

연예인보다 잘 버는 보험설계사

연봉 평균 5240만원 간병인 3170만원 4위

보험설계사들이 평균적으로 배우, 가수보다 많이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세청이 집계한 '201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원천징수 대상 보험설계사 7만7160명의 평균 소득은 5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수(4319명)의 4480만원이나 배우(1만4716명)의 371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억대 연봉자가 포함된 반면 가수, 배우는 스타급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평균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고령화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간병인(4만1220명)은 평균 소득이 3170만원으로 4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직업운동가(1만9426명·평균 2960만원), 음료배달원(1만7514명·1700만원), 퇴가(1만3281명·1470만원), 작곡가(9794명·1250만원), 학원강사(33만9333명·124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다단계 판매원(79만6957명·120만원), 대리운전(4만3153명·200만원), 번사도우미(16만3421명·350만원), 성악가(7864명·590만원), 연예보조원(7만4827명·810만원) 등의 신고 소득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서국진기자 kmbiz@

해외항공권 두 번 할인받는 농협카드

NH농협카드가 2014년 새해를 맞아 해외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농협카드의 생활문화 서비스 포털인 채움스케치에서 해외 항공권을 결제할 경우 5% 할인과 함께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출발하는 날짜와 관계없이 행사 기간 중 결제하는 모든 해외 항공권에 대해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채움스케치에서는 전 세계 해외 호텔 3%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이번 해외 항공권 할인 행사와 함께 이용할 경우 보다 알뜰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가율 4.3%…대기업 기죽네

지난해 우리나라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데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수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1683억9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 수출 증가율(0.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84%를 차지하는 수출 실적 100만 달러 미만 업체 수와 해당 업계의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실적 10만 달러 미만 업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으며, 100만 달러 미만 업체 수는 3.2% 증가했다. 10만 달러 미만 업계 수출액은 2.1%, 100만 달러 미만 업체 수출액은 2.2% 늘었다.

/이재영기자 ljy1403@

첨단 모터쇼장 된 CES

구글 OS 탑재한 아우디 신차, 가전쇼의 킹카로 부상
스마트카는 대세…최소한의 '아날로그 안전장치' 필요

Issue&View
자동차의 IT화 어디까지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2014 CES'의 이름이 모터쇼로 바뀔지도 모른다.

독일 명차 브랜드 아우디가 구글과 합작한 첨단 자동차를 이곳에서 선보일 뿐 아니라 한국의 현대차도 차세대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공개한다.

루퍼트 슈타들러 아우디 회장은 아예 2014 CES의 기조 연설자로 참가한다. 이제껏 주요 자동차 브랜드가 가전전시회에 참여하면서 향후 이 같은 행보를 하는 자동차 업체는 급증할 전망이다.

자동차 업체가 가전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은 '자동차는 정보통신(IT) 기술의 결정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아우디가 선보이는 신차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해 차 내부에서 음악은 물론이고 영상과 주행 정보 등을 공급한다. 즉 음성으로 명령을 하든 터치스크린에 터치를 하든 운전자가 원하는 기능을 더 편리하게 구동해준다.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자동 운전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아우디의 새 차에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의 라이벌인 애플도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OS와 아이폰을 기반으로 차의 계기판을 아이폰 화면처럼 꾸며 자동차의 주요 기능을 컨트롤하는 이른바 '아이카' 프로젝트를 GM·BMW·벤츠·혼다 등과 진행 중이다.

구글과 애플의 이 같은 경쟁은 쉽게 말해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가 먼저 저렴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느냐다.

이제껏 PC나 모바일기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은 이미 성장기를 지나 경쟁에 다다른 상황이고 결국 차기 먹거리는 자동차에서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온갖 IT 기술과 전자장비를 구축한 첨단 자동차는 살 만한 물건일까?

이러한 자동차의 특성상 비쌀 수밖에 없는 가격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안전'에서 물음표가 붙는다. 자동차의 주요 시스템을 다스리는 제어 계통의 전자부품은 고장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반도체만 해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언제든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잊을 만하면 멈추는 것도,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 계통 전자부품이 고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인자동차의 경우 시스템 오류가 생겼을 때의 부작용은 사실상 재앙 수준이다. 집 안의 PC가 고장나면 AS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무인자가 달리는 도중에 고장 나면 탑승자는 물론 주위의 자동차에 탄 사람들까지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최근 빈발하는 급발진 사고만 해도 부품 전자화가 덜했던 2000년대 이전에는 찾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자동차의 '첨단 IT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하다. 조금만 관련 장비를 추가하면 운전 환경이 대폭 달라지는데 마다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첨단화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 장치, 가속 페달이나 트랜스미션과 같은 주행 관련 장치 등에는 전자부품 장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BMW도 전기차 i3를 앞고 가전박람회인 2014 CES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4일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 준비 중인 i3. /로이터 연합뉴스

댓글·SNS로 갈아타는 스팸

휴대폰·이메일 발송은 ↓

휴대전화·e메일 등을 통해 보내는 불법 스팸이 줄고 있지만 박스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신종 스팸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방통위에 신고된 전체 불법 스팸은 총 1927만7021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스팸 신고 건수는 2009년 3561만9946건에서 2010년 7037만401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5316만7089건, 2012년 3271만4062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휴대전화 스팸은 2009년 3558만7643건에서 2010년 7033만7379건으로 늘었다가 2011년 5308만6487건, 2012년 3259만3419건, 지난해 1~10월 1919만8818건으로 줄었다.

e메일 스팸도 2009년 2만8921건에서 2010년 3만1923건, 2011년 4만6345건으로 증가한 후 2012년 3만9740건, 지난해 1~10월 2만5401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게시판(댓글) 스팸' '인터넷 팩스 스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팸' 등 신종 스팸은 2009년 3048건, 2010년 4363건, 2011년 3만3703건, 2012년 8만249건으로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0월 접수된 신고 건수도 9만2460건에 달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LG가전 현장점검 나선 구본무 회장

구본무 LG 회장이 새해부터 현장 경영에 나섰다. LG전자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의 베스트샵 등 900여 개 판매전문점 대표를 초청해 올해 주요 제품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국영업본부 정책발표회를 갖기 직전 전시장을 방문한 것.

이날 전시장에는 105형 21대9 곡면 울트라 HD TV'와 77형 울트라 HD 곡면 올레드TV'를 비롯해 '넥북', 천연 이로바 향을 전달하는 휘센 에어컨 신제품, 19㎏ 대용량 '블랙라벨 세탁기'와 오토무빙 기술을 적용한 '로보싸이킹' 등 총 100여 개 제품이 전시됐다.

구 회장은 이날 각 제품 연구소장 및 사업 담당의 설명을 듣고 전시장 내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각 제품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별화된 가치가 잘 구현됐는지 또 각각의 기능을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구 회장은 '곡면 울트라 HD TV'와 '울트라 HD 곡면 올레드TV'의 화질과 디자인을 꼼꼼히 살펴보고, 넥북 등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의 배터리 지속 시간과 무게 등을 확인했다. /김형근기자 kgh@

구본무(가운데) LG 회장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LG전자 주요 제품 전시 현장을 찾아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 /LG 제공

한국인 하루 90분꼴 모바일로 포털 이용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1시간30분을 스마트폰으로 포털을 이용하는 데 쓰고 있었다.

5일 KT경제경영연구소가 IT 지식포털 사이트 디지에코에 발표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포털사이트 이용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모바일 포털에 접속한 시간이 하루 평균 90분에 육박했다.

이용 방법으로는 모바일웹(48.3%)보다 모바일앱(51.7%)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인터넷 포털 서비스 인당 평균 이용 시간은 1.9시간으로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태블릿 PC 이용 시간은 49분으로 조사됐다.

/박상훈기자

팬택 베가 오늘부터 지문으로 결제 가능

팬택은 '베가 시크릿업' '베가 시크릿 노트' '베가 LTE-A' 등 3종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문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안전결제(ISP) 서비스를 6일부터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ISP는 신용카드 결제를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휴대전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비밀번호와 함께 지문을 인식시켜야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PC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결제할 경우에도 모바일 ISP 앱을 이용해 비밀번호와 지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해당 PC에 ISP 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할 뿐 아니라 쇼핑은 인터넷으로 즐기고 결제는 지문인식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유키스-의류 행선 /롯데백화점 제공

유통업계 '오감 마케팅' 바람

갑오년(甲午年) 맞디 해를 맞아 일부 유통업계가 사람과 말(馬)이 교감하는 '승마'처럼 오감(五感)을 활용한 마케팅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다양한 오감 마케팅을 벌인 데 이어 올해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옷을 구매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의류 앨범'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본점 영 패션 2층 임시 매장에서는 16일까지 인기 아이돌 '유키스'의 신곡 4곡을 비롯해 뮤직비디오, 화보 컷, 주요 일정 등이 포함된 의류를 판매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옷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한 후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모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 전국 점포에서는 19일까지 화장품 신제품을 체험해보는 '화장품 신제품 체험단'을 모집한다. 신제품 구매를 통해 직접 사용해보고 브랜드별 체이스북 후기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비슷한 가격대의 화장품을 무료로 추가 증정하는 행사다. 해당 제품은 '에스티로더' 마이크로 밤보 에센스, '제라' 셀-바이오 크림, '아베다' 드라이 레미디 샴푸·컨디셔너 등 3가지다.

화려한 색(色)의 가전·가구 상품도 선보인다. 부산본점·대구점 등 주요 지방 점포에서는 19일까지 나무인 식기 브랜드 '프랜차볼'이 인기 상품 특집전을 연다. 컬러풀한 접시, 앞치마, 장갑 등을 알뜰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영패션MD팀 최용화 영캐주얼 선임상품기획자(CMD)는 "최근 상품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하는 컨버전스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2014년 새해에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혜실기자

한국야쿠르트, 4050 '골드퀸' 잡아라

건강음료 '백수오 진' 출시

한국야쿠르트가 새해를 맞아 건강음료 '백수오 진(眞)'(사진)을 출시하고 골드퀸 들의 마음 잡기에 나섰다. 골드퀸은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건강과 외모, 삶의 질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40~50대 여성들을 일컫는 용어다.

백수오 진(眞)은 40여 년간 건강식품을 연구해온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의 기술이 응집된 제품이며 엄격한 원료 검증 과정을 통해 개발됐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514mg'과 석류 콜라겐, 혼합베리 등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한 원료들이 가득 담겼다. 인공첨가물은 일절 배제했으며 달지 않고 은은한 오미자 향이 특징이다.

/정혜실기자

'통행세' 관행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2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통행세' 관행으로 퇴직 임가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겼다.

내츄럴삼양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했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 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70억원의 부수익을 거둬들였다.

설 선물 실속 또는 럭셔리

1만~2만원 저가·1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 동시 강세 '양극화 심화'

올해 설 선물이 지난해와 같이 중저가 실속 세트 증가와 함께 프리미엄 세트도 동시에 강세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마트가 예약 판매 매출을 집계한 결과 10만원 이상의 한우, 인삼 세트와 함께 1만~2만원대 저가 커피, 생활용품 세트 등 실속형 상품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물 매출 감소 여파로 수요가 늘면서 냉동 갈비는 5~10%, 냉장 정육은 5% 이상 가격이 오를 것으로 이마트 측은 예상했다.

사과의 경우 생육 기간에 고온 및 엘니뇨가 이어지면서 생장이 부진해 대과 물량의 경우 지난해보다 5~10%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굴비는 지난 봄 어획량이 10%가량 감소했지만 지난 추석 방사능 우려의 영향으로 소비 역시 줄어들면서 비축 물량이 늘어나 가격은 5%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장중호 이마트 마케팅 담당 상무는 "올 설에는 경기 회복 실속형 상품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선물세트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선세트의 경우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이마트 혼심 로스바스코스 와인 등 지난해 이마트가 자체 기획해 인기를 끈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차별화 세트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이런 추세를 반영

올해 이마트에서 설 선물이 중고가와 저가로 나뉘어 양극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백화점 측은 올해 설 선물 매출이 전년보다 7%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백화점의 본 판매는 오는 13~30일까지 벌인다. /롯데백화점 제공

해 한우세트 수요가 매년 5~10%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역시 물량을 10% 이상 늘려서 마련했다. 갈비 선물세트도 미트 센터를 통해 사전 물량을 확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선 선물세트 중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 선물세트는 지난 추석에 이어 전년 대비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키로 하고 20% 이상 물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명절 대표 선물인 굴비세트는 지난 추석 방사능 우려로 인해 10% 이상 판매가 줄었으며 갈치와 옥돔 등 프리미엄 수산선물세트 역시 20% 이상 판매가 줄어 올 설의 경우 지난 설보다 5% 이상 가격을 낮춰 최저 가격 수준으로 구성해 준비했다.

저렴한 가격대의 조미김의 경우 15종의 상품은 1만~5만원 내외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했다. 멸치도 지난해 10월 볶음용으로 사용되는 멸치(소)가 10~15%가량 어획량이 늘어나고 품질이 양호한 상품이 많아 10%가량 저렴하게 판매키로 했다.

전체 명절 선물세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 및 생활용품 세트의 경우 3만~5만원대의 중저가형에서 1만원 미만의 초저가형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 제품을 구성했다. 신선세트의 경우 개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량 구매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인 N+1 행사를 축소하고 상품 가격을 5~10%가량 낮춰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혜실기자 jmra@metroseoul.co.kr

"굴비 안심하고 사가세요"

롯데마트 수산물 이력제 도입

일부 유통업체가 대목인 설 기간 일본 방사능 유출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수산물의 판로 개척과 분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선보여 관심을 끈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작년 추석 선물세트 매출을 조사한 결과 방사능 여파로 쉬 대표 수산물 선물인 굴비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는 오는 31일 설을 맞이 이식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올해 설 선물세트로 '안심 먹거리'에 중점을 두고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한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수산물 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공개해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된 굴비세트 /롯데마트 제공

작년 하반기 일본 방사능 공포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것을 고려해 상품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먼저 명절 대표 선물로 인기가 많은 '굴비'의 경우 총 6개 품목 1만5000개 세트를 선보인다. '참굴비 선물세트 특호'(1.8kg·20마리)를 3만9800원에, '천일염 참굴비 세트 3호'(1.1kg·10마리)를 11만8000원에 판매한다.

특히 '건어물' 품목을 한층 강화해 선보인다. 작년에는 김 1개 품목만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멸치를 추가로 구성해 총 4개 품목으로 강화하고 물량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2만5000개 세트를 준비했다.

해당 품목들은 '수산물 이력제 사이트'(www.fishtrace.go.kr)에 접속해 각 상품에 기재된 이력제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생산부터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을 통해 품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재 비용을 절감해 가격도 시중가 대비 20~30%가량 저렴하게 판매된다.

/정혜실기자

metroopinion

경제위기의 해법은 정치발전이다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새해를 맞은 정·재계는 1년을 앞을 예측 위기의 해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째를 맞아 경제 살리기를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국가 안보,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사실 국민 행복을 신앙처럼 여겼던 박 대통령에겐 경제 문제가 다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비장하리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의 신년사에는 한결같이 위기의식이 강하게 담겨 있다.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몽구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구본무 회장은 "기업 경영은 위기 그 자체"라고 진단하면서 "1등 경쟁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사실 지금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혼미 속에 저성장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다. 우리나라도 몇몇 대기업이 주도하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불황의 터널을 헤매고 있다. 여기에 다 북한의 정세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해야 할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불신감만 키우고 있다. 유럽에서 비교적 안정된 나라와 국가 부도 등으로 불안한 나라의 특징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안정된 나라는 정치가 타협과 화합, 노사관계가 협력과 상생, 불안한 나라는 정치가 불신과 갈등, 노사관계가 대립과 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목표를 세워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정쟁과 파업을 자제하는 사회 협약을 맺어 나라 발전을 추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갈등의 골이 깊은 사회다. 물론 터키가 우리보다 지수 상으로는 더 갈등을 겪는 나라이지만 종교적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정치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 살리기도 가능하고 국가 안보도 튼튼해진다. 비록 올해가 위기의 해라고 하지만 정치를 비롯해 고른 분야에 혁신이 가해진다면 나라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정치 발전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최대의 해법이다. 여야를 떠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포토프리즘 — 사랑의 온도 아직은 80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이 4일 오후 80도를 돌파했다. 3110억원을 모금 목표액으로 잡은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낮은 80%의 모금률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수신료 인상' KBS의 탐욕

뉴스룸에서
김태균
<경제산업부 기자>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의 탐욕이 무섭다. 경영 적자를 이유로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 등을 내놓고 호보하며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 권력으로 자리한 데 이어 간접광고 허용까지 얻어낸 마당에 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

특히 KBS는 공기업 자사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시청자에게 강요하기까지 한다. 재계에서는 이미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요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고사성어에 '득롱망촉'이라는 단어가 있다. '농(隴)나라를 얻고 나면 또 촉(蜀)나라를 바란다'는 뜻으로, '욕심은 끝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위나라 조조는 지금의 사천성인 신시성 남쪽 농지방에 자들어가 그 일대를 수중에 넣었다. 부하인 사마의는 조금 무리하면 촉의 땅 모두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조조는 "인간은 이 정도면 되겠다 며 만족하기가 여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미 농을 얻은 마당에 촉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고 일갈했다.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의 최대 방송사인 NHK도 수신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KBS처럼 한 번에 40%를 인상하려고 하는 일은 벌이지 않는다. 심지어 수신료 징수 방식도 KBS와 다르다. NHK에 소속된 징수원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율도 60%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KBS의 수신료 징수율은 무려 90%를 훨씬 상회한다. KBS도 한때 NHK와 같은 징수 방식을 채택했던 적이 있다. 그 유명한 전두환 정권 당시의 '땡전뉴스' 등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슬그머니 한전의 전기료에 이를 합산해 반강제적으로 수신료를 받고 있다.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기 위해 공영방송에 대한 재원 구조의 안정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이 관건"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뜻의 '반구저기'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KBS는 자신들의 허물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잘되면 조상 탓, 잘못되면 제 탓'이라는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냈으면 한다.

코르도바의 전설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지중해의 태양은 황금빛 오렌지를 닮았다. 이걸 차지하는 자가 위대한 제왕이 된다는 전설에 매혹된 자들이 오디세이의 후예들이 됐다. 이들이 세운 도시마다 신전이 들어섰고, 영웅들은 사랑에 맹세를 하고 전투를 벌였다.

그런 사나이들이 사라진 세월이 무려 1000년은 더 흘렀음에도 돈키호테가 둘시네아를 연모하며 방랑기사가 된 것은, 지중해의 햇살 덕인지 모른다. 풍자를 들뜰 기운이 넘치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너무나 뜨거워 머릿속 골이 녹아버릴 지경이라며 '돈키호테'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아직도 생각할 수 있는 골이 남아있다면"이라고 익살을 부린다.

지중해의 뱃길은 문명의 교차로였다. 트로이전쟁의 유민들이 로마의 뿌리가 되었는가 하면, 페니키아의 뱃사람들은 카르타고 제국의 조상이 된다. 어디 그뿐인가? 다마스쿠스에서 밀려난 이슬람의 한 왕조는 이베리아반도에 닿아 새로운 고향을 건설한다. 중세 유럽이 고대 그리스의 유산과 결별하고 독단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이들은 대학과 도서관을 세우고 '공존의 철학'을 연마한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코르도바는 바로 그와 같은 작업이 펼쳐지는 본거지였고, 여기를 찾아든 중세 유럽의 지식인들은 르네상스라는 다음 시대의 준비를 위한 훈련에 몰입했다. 이곳 칼리프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서로 배우면서 존중하게 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자신도 본향에서 쫓겨나 망명자가 됐던 세르반테스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역사의 핵심으로 설파한다.

이 다채로운 삶이 누렸던 풍요로움이 깨진 것은 1492년 가톨릭의 독점체제가 이슬람과 유대인들을 축출하면서부터였다.

대서양으로 뻗어나간 스페인은 이후 200여 년 동안 위세를 떨치지만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 자신의 내부에 존재한 다양한 역량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결과였다. 물론 어떤 역사도 차고 기우는 곡절이 있기 마련이나 서로 다른 차이를 아우르는 힘을 잃으면 다시 일어서는 일은 너무나도 힘겹다. 별로 뜨겁지도 않은 태양 아래 이미 머릿속이 녹아버린 것도 아닌 판에 인간은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 저지른다.

코르도바의 신화는 그러니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 맹세를 하는 영웅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차이를 차별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해하는 시대는 황금빛 오렌지를 자기 땅에서 길러내는 법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신뢰 회복이 먼저

기자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갑오년 새해를 맞아 증권 금융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시장 안정화'와 '새 먹거리 창출'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당신의 발만 바라본다"라는 작자 미상의 명언도 있듯이 금융권은 해외시장 개척이다 진보적인 금융상품 출시 등을 전면으로 내세우기 전에 먼저 금융사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양그룹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금융사의 부당 영업, 거래 시스템 사고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는 막대하다.

금융사는 금융사대로 거래 침체로 수익난이 심각해지면서 수년째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형 투자은행(IB), 한국형 헤지펀드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뚜렷한 성과가 다지 않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금융사들이 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공분을 느꼈다.

금융감독 당국마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애매하게 흐리면서 보상폭을 줄이는 데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더 신뢰를 잃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한국형 투자은행(IB)·헤지펀드를 육성한다고 외쳐도 개인투자자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주는 금융의 존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디젤처럼 느끼고 연비는 짜릿하게 '업'

■ 메르세데스 벤츠 E300 블루텍 하이브리드

전기모터로만 주행 가능 BMW·렉서스 동급보다 디젤엔진의 토크감 강렬 감속 충격 더 적었으면

▲한 줄 평가: 연비를 향상시키면서 운전 재미도 포기하지 않았다. 전기 모터의 활용 구간이 적다는 게 흠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는 ½)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벤츠 모델은 E클래스다. E300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디젤 모델인 E220 CDI의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었다. 그러나 라이벌인 BMW에 비해서 부족한 엔진 라인업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추가된 E300 블루텍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약점을 메워줄 모델이다. E250 CDI에 얹은 2.2ℓ 204마력 디젤 엔진과 20kW 전기 모터를 조합해 파워와 연비의 향상을 동시에 꾀했다.

기존 디젤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벤츠에서는 시속 35km까지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속 20km 정도에서 엔진이 작동한다.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도 1km로 비교적 짧다. 이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타입의 구조적 한계다.

반면에 풀 하이브리드 타입의 렉서스 GS450h는 전기 모터가 2개 장착돼 더 긴 거리를 시속 45km로 달릴 수 있다.

E300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작동하는 구간이 많다 보니 기존 디젤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좋다. E220 CDI의 복합 연비가 14.8km/ℓ인 반면에 E300 하이브리드는 17.2km/ℓ로 훨씬 우수하다.

도심 연비 또한 15.7km/ℓ로 E220 CDI의 12.5km/ℓ보다 낫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두 차의 연비 차이가 크지 않다. 특별히 경제적인 주행에 신경 쓰지 않은 이번 시승에서는 11km/ℓ의 연비를 기록했다.

E300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은 단순히 연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가솔린 엔진과 모터를 조합한 BMW 액티브 하이브리드5나 렉서스 GS450h와 비교할 때 디젤 엔진의 강력한 토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장점이다.

흠 한 가지를 잡자면 주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경우 감속 충격이 조금 크게 느껴진다. 엔진에서 모터 구동으로 전환될 때 렉서스 GS450h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인데 E300 하이브리드는 약간의 충격이 있다.

E300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8110만원으로 렉서스 GS450h(8050만원)보다는 비싸고 BMW 액티브 하이브리드5(1억420만원)보다는 저렴하다. 같은 벤츠 모델 중에서 E220 CDI는 6190만원으로 가격이 훨씬 낮다.

따라서 주행 목적이나 운전 습관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기아차 '호주오픈'에 볼키즈 40명 파견

기아자동차는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2014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활약할 볼키즈 한국 대표 40명을 최근 호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볼키즈(Ball Kids)는 테니스경기에서 테니스 볼 공급 처리를 비롯해 선수들의 경기 진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유소년을 칭한다. 기아차는 호주오픈 공식 스폰서로 11년 연속 볼키즈 한국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7월부터 350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영어능력 평가, 실기 평가 등 2차에 걸친 심사를 실시했다.

이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볼키즈 한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사전 교육 및 경기 실전 연습을 실시했다.

이달 호주로 떠난 볼키즈는 테니스 경기 운영에 대한 집중 훈련을 받고 2014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예선 및 본선에서 호주 현지 볼키즈 등 380여 명과 함께 테니스 스타들의 경기를 지원한다. /임의택기자

<겨울 [illegible] SUV 중고가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투싼IX	1,700	1,780	1,850	2,000	2,240
	싼타페 DM	1,640	1,840	2,030	2,300	2,920
기아	스포티지R		1,880	1,960	2,120	2,190
	쏘렌토R	1,920	1,980	2,220	2,410	2,810
쉐보레	캡티바			2,130	2,330	2,680
르노삼성	QM5	1,490	1,570	1,820	2,320	2,720
쌍용	코란도C			1,660	1,930	2,060
폭스바겐	티구안	2,490	2,860	3,110	3,440	3,760
BMW	X1		3,140	3,450	3,860	4,380
	뉴X3			4,660	5,010	5,520
지프	랭글러	2,740	3,090	3,230	3,770	4,210
아우디	Q5	3,750	4,220	4,310	4,510	5,230

정보제공: 카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420kg 감량…7.2초만에 시속 100km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수퍼차저 판매 돌입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데이비드 맥긴티이어)가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수퍼차저 모델을 6일부터 공식 판매한다. 랜드로버 코리아는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했던 3.0ℓ SDV6 터보 디젤 엔진 모델에 이어 가솔린 엔진 3.0 수퍼차저 모델 출시로 라인업을 강화했고, 상반기 중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 풀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수퍼차저 모델은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민첩한 주행 성능과 확실한 응답성이 특징이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라인업에 처음 탑재한 3.0ℓ V6 수퍼차저 엔진은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45.9kg·m를 발휘하며 7.2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성능을 지녔다. 경량 알루미늄 구조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모듈형 디자인의 엔진과 최신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시스템을 탑재해 연비 효율을 7% 이상 향상시켰다. CO_2 배출량은 229g/km다.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수퍼차저는 100%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를 채택해 기존 모델 대비 420kg을 감량하고 차체 강성을 높였으며 민첩한 핸들링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즉각적인 응답성을 자랑하는 커맨드 쉬프트 2(CommandShift 2) 8단 자동 변속기는 레인지로버 라인업 중 유일하게 스틱 형태로 디자인돼 운전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온·오프로드를 아우르는 뛰어난 주행 성능은 레인지로버의 명성 그대로다.

기본 탑재된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은 최적의 코너링 성능과 겨울철 눈길·빙판길 같은 극한 노면 상태의 주행 성능을 모두 확보했다.

기본 토크 배분은 42대58로 후륜 중심으로 설계돼 드라이빙 성능을 극대화시켰으며 노면 상태와 그립에 따라 앞쪽으로 최대 63%, 뒤쪽으로 77%까지 배분한다. 국내 출시 모델은 '올 뉴 레인지로버 3.0 수퍼차저 HSE 다이내믹'이며 판매 가격은 1억309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음료만 잘 마셔도 건강

비타민C·유산균·홍삼… 몸에 좋은 기능성 음료들 눈길

새해 위시리스트 중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관리다. 운동과 채소·과일 섭취 등 규칙적인 생활 습관 및 식습관을 계획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다짐'을 지키기 쉽지 않다. 음료는 바쁜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부족한 수분과 영양소를 가볍게 보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식품이다.

◆감기 예방 기능의 비타민 C 음료

환절기 질환인 감기를 예방하는 데는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을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대약품의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프링글'은 비타민 C를 탄산음료로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롯데칠성음료의 온장음료 '한라봉과 유자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유자·레몬·제주산 한라봉을 사용한 과즙자로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장 운동 돕는 유산균 음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기름진 음식 섭취가 많아지는 등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활발한 장 운동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음료를 추천한다.

'힐쎅올리고'는 독특한 유산균 콘셉트의 음료다. '힐쎅올리고'에는 생존력이 높은 갈락토올리고당이 들어있어 장에 이로운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풀무원다논의 '아이러브요거트 쭉쭉'은 우유의 영양에 유산균을 더한 제품으로 딸기 바나나와 망고 2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일을 통째로 갈아 넣어 풍부한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다.

◆위 건강관리엔 유산균 발효유

한국야쿠르트는 위염과 위궤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의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해피 뉴 이어 2014'라는 신년인사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설날까지 한정 판매된다.

◆피로 해소·면역력 증진에는 홍삼 음료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속에 음주하지 못해 만성피로로 고생한다면 면역력 증진, 피로 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건강식품 '홍삼'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아다맑고 진한 홍삼수'는 홍삼의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mg으로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까지 높인 대표적인 홍삼 음료다.

이 밖에도 CJ제일제당의 '아이시안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과실 43개에 해당하는 과즙과 비타민 A 1일 권장량 기준치의 30%가 담겨있어 눈에 좋은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

/정현길기자 sanan@metroseoul.co.kr

햇잎 담은 맥키스, 어떤 맛일까? 맥키스사는 6일 오전 햇잎 추출물을 함유한 '햇잎담은 맥키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다. 이 제품은 천연의 국내산 보리쌀 혼합 숙성한 원주에 추부햇잎 추출물을 담아 맛도 좋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 건강에도 이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출고 가격은 6570원(750㎖)과 3170원(333㎖) 등 2종류로 구성됐다. /맥키스 제공

60% 싼 '메트로 패키지' 오늘까지 접수

쉐라톤 인천 호텔 이벤트 이용기한은 다음달 28일

쉐라톤 인천 호텔이 새해를 맞아 메트로신문 고객만을 위한 '메트로 윈터 패키지'를 특별히 선보였다.

패키지는 넓은 유리창으로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하는 디럭스 룸에서의 1박,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의 2인 조식을 제공한다. 또 피트니스와 실내 수영장 및 객실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6일까지 예약 가능한 패키지는 2월 28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메트로신문 지면에 게재된 전화번호 혹은 e메일(reservation.incheon@sheraton.com)을 통해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특별히 정상 가격에서 60% 낮춘 17만원부터(1일 기준, 세금·봉사료 별도) 제공된다.

문의 032)835-1004 /송재용기자

내추럴 헤어라인·강렬한 컬러 뜬다

박준뷰티랩 제안한 올해의 헤어트렌드

이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박준뷰티랩의 연구팀이 2014년 헤어 트렌드를 발표했다. 올해는 자연스럽게 연출한 헤어 라인에 강렬한 컬러를 적용하고, 헤어 끝에 힘을 실어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다.

라인&하모니

섀도 시크

◆라인&하모니 무게감 있는 뒷라인과 살랑거리는 느낌의 깃털 같은 헤어 라인은 직선과 곡선의 어우러짐을 보여준다. 색상은 퓨어브라운을 사용했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했다. 메이크업은 핑크 꽃잎이 물든 것처럼 사랑스럽게 연출됐다.

◆섀도 시크 심플한 커트에 끝머리의 컬을 살려 자유로움과 와일드함을 강조했다. 색상은 쿠퍼 다크브라운. 단조로운 느낌보단 선의 방향성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 블루 아이스모키의 짙은 눈화장으로 열정적인 여성상을 표현했다.

◆쇼트 뱅&쇼트 커트 파블로 피카소를 모티브로 입체적인 구성을 통해 쇼트 커트 안에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쇼트 뱅이 주는 몽환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인다. 색상은 재리와인. 강렬한 메이크업으로 섹시함을 강조했다.

◆세미 보브 동양인의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 자연스럽게 뻗지는 옆머리 덕분에 얼굴형이 갸름해 보인다. 컬러는 달색 브리지. 누드톤의 피부 연출이 포인트.

◆쇼트 보브 일자 단발의 느낌이 투박하지만 그 내면의 순수함을 나타낸다. 색상은 버건디와인. 메이크업 컬러에 맞춰 강렬한 화장으로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박지원기자 jjw@

나이키 플라이니트 신제품

나이키가 플라이니트 시리즈의 신제품 '나이키 플라이니트 에어 맥스'를 선보였다.

초경량 플라이니트 갑피와 나이키의 상징인 에어 맥스 쿠션이 결합된 첫 제품으로 뛰어난 지지력과 통기성, 착용감이 편안함을 제공한다. 새롭게 디자인된 와플 패턴의 겉창은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유연한 러닝을 가능하게 해준다.

중창에 구실된 폼과 전장 맥스 에어를 적용해 쿠션감이 좋고, 플렉스 홈 설계로 부드러운 발망 전환을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문의 www.nikestore.co.kr

클라란스맨 새 모델 이상윤

스킨케어 브랜드 클라란스가 남성 라인 '클라란스맨'의 새 모델로 배우 이상윤(사진)을 발탁했다.

회사 측은 "이상윤이 가진 깨끗한 마스크와 진솔함이 클라란스맨이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와 잘 부합된다"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다.

2월에 출시 예정인 '클라란스맨 세트'는 올인원 타입의 클렌저·애프터 셰이브 토너·수분 로션 2종 등 총 4가지 베스트 셀러 아이템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아웃도어족 유혹하는 한정판

콜맨 '카우보이 랜턴' 등 소량판매로 소장가치 커

최근 유행에 민감한 트렌드세터들 사이에서 '신상(신상품)'보다 '한정판'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정판은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하거나 제가지 디자인 등을 달리해 일정 수량만 출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제한된 기간 중 소량만 판매해 소장 가치가 높고 각 브랜드 고유의 개성은 물론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돼 있어 더욱 인기다. 아웃도어 업계에서도 이 같은 소비자 추세에 맞춰 발 빠르게 한정판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아웃도어 캠핑 브랜드 콜맨은 카우보이를 테마로 한 '시즌 랜턴 2014'를 한정판으로 내놨다. 모래색을 연상케 하는 은은한 베이지 컬러의 랜턴 본체, 카우보이(Cowboy) 글자를 밧줄로 형상화한 독특한 서체와 조개껍데기처럼 개폐되고 운반이 간편한 크램 셀 캐리 케이스가 특징이다.

컬럼비아는 올겨울 밀리터리 콘셉트를 반영한 '엠티 서트로 리지브 다운'을 선보였다. 카키 그린·브라운 컬러를 바탕으로 한 카무플라주 패턴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 글로벌에서 전개 중인 헌팅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세련된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엠리미티드의 '브로드피크 시리즈'는 사진작가 이창수가 촬영한 세계 제12봉 브로드피크(8047m) 사진을 다운재킷·백팩·등산화·윈드재킷 등 다양한 상품의 메인 프린트로 활용해 예술성을 부각시켰다.

/서지원기자

스커트 겉·안감 따로 다림질

천연소재 많은 겨울의류 '오래 입는' 세탁 노하우

모나 울, 캐시미어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한 겨울 의류는 관리도 까다롭다. 하지만 번번이 세탁소에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옷감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필립스가 관리가 까다로운 겨울 의류도 언제나 새 옷처럼 유지하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니트는 따뜻하지만 보풀이 잘 일어나고 세탁 시 모양이 변형되기 쉽다. 세탁 시 울 전용 세제나 샴푸를 사용하고, 옷을 뒤집어서 옷의 표면이 망가지지 않게 한다. 찬물로 빨아야 색 빠짐이 적다. 세탁한 뒤에는 살살 눌러 물기를 제거한 다음 평평한 곳에 널어 말린다. 보풀이 생겼을 경우 스팀다리미로 스팀을 한번 쐬어주고 일반 면도기로 살살 긁어내면 된다.

두꺼운 겨울 스커트는 아크릴이나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에 모·울 등 천연섬유가 혼합된 경우가 많다.

천연섬유의 혼합 비율이 높을 경우 옷감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전용 세제를 사용하거나 드라이클리닝을 한다. 특히 다림질을 할 때는 겉감과 안감을 따로 다리고, 털에 예민한 옷감은 천을 대거나 스팀다리미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다리는 것이 좋다.

◆캐시미어, 얇은 천 깔고 다려야

캐시미어 코트가 물에 젖었을 때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보풀이 일어나면 결을 따라 면도기로 제거한다.

처음 세탁할 때는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울 샴푸 등 중성세제를 사용해 손빨래하되 비벼 빨는 것은 피한다. 그늘에 수건을 깔고 옷을 형태대로 펴서 말리고 다림질을 할 때는 얇은 천을 대고 다리거나 뒤집어서 낮은 온도로 다림질한다.

/서지원기자 sjw@metroseoul.co.kr

"디즈니랜드 온 것 같아요" 5일 서울 신도림 디큐브 시티에서 열린 '디즈니 조이풀 홀리데이' 축제를 찾은 가족들이 디즈니 캐릭터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19일까지 '겨울왕국 축제' 디즈니 조이풀 홀리데이를 열고 프린세스 아카데미, 디즈니 시대의 놀사와 영화 관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공항패션 정석은 '레이어드 룩'

겨울방학 출국 전 잠깐! 지바이게스 코디 제안

본격적인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대학생들이 많다. 유행에 민감한 학생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세련되고 편안한 공항패션. 지바이게스 관계자는 "해외여행은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2~3시간 이상을 기내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레이어드룩'을 연출하라"고 조언했다.

또 신축성이 좋은 소재와 넉넉한 지수의 아이템을 고르되 재킷·노트 등 화려한 패턴으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티셔츠에 체크 롱 셔츠를 오픈해 입고 레깅스·스니커즈로 발랄함을 강조하거나, 티셔츠에 가죽 스타일 팬츠·굽 낮은 바이커 부츠로 룩 시크 스타일을 연출하면 멋스럽다.

/서지원기자

"제2병원 모든 병실 1인실, 100년 대계"

이순남 이화의료원장 신년사 통해 혁신경영 다짐

이순남(사진) 이화의료원장이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제2부속병원 건립과 관련해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이화의료원의 주요 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의료원장은 "전 병실 1인실을 골자로 한 이화의료원의 제2부속병원 건립 계획을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생각해 한국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혁신이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걱정하며 이화의료원의 미래를 우려하는 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제2부속병원은 이화의료원의 명운이 걸린 일로 개원 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료원장은 "현재 병원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는 진정한 고객 만족 서비스 구현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로 극복할 수 있다"며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산업화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해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마련하는 등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료원장은 2014년 세부 경영 계획으로 ▲이대목동병원, 이대여성암병원의 센터별 경쟁력 향상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재인증을 통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지속적 향상 ▲기초 및 임상 연구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연구교수 의부 영입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글로벌화를 위한 기반 구축 활동 구체화 ▲제2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 본격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재용기자

삼성제약 '장엔장' 출시…장기능 개선 도움

패스트푸드, 육류·음료 및 섬유질 부족으로 최근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변이 체내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 유독물질이 생겨 건강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스명수, 솔기담, 우황청심원 등을 만드는 삼성제약에서 '장엔장'을 출시했다.

장엔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제조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이눌린·치커리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또 49종의 엄선된 원료를 사용해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은 가스가 차거나 잔변감을 느끼는 사람, 노약자, 잦은 설사나 스트레스 과민성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으며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02)778-4568 ssandle.co.kr

/황재용기자

아름답고 몽환적인 덥스텝의 슈퍼스타 JAMES BLAKE.

◆◆◆

★ BBC Sound of 2011 2위
★ 2013 Mercury Prize 수상
★ 56TH Grammy The Best New Artist 후보

JAMES BLAKE

[제임스 블레이크]

LIVE IN SEOUL

2014. 1. 19 SUN

PM 6:00

UNIQLO AX HALL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에브리데이3' 쇼케이스에 참석한 걸그룹 걸스데이 유라·혜리·소진·민아가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 조현정 기자

이번엔 '은근 섹시' 미녀 사총사

신곡 '섬싱'으로 컴백 걸스데이

걸그룹 걸스데이가 2014년 갑오년 걸그룹으로서 첫 출격을 알렸다. 이번엔 절제된 섹시 콘셉트다. 다양하고 파격적인 변신으로 지난해 남심을 흔들었던 걸스데이가 연초부터 새 미니앨범 '에브리데이3'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섬싱'으로 섹시 매력을 드러낸다. 1990년대 후반 가요계를 흔들었던 엄정화의 '초대'와 박지윤의 '성인식'을 넘어선 기세다. 이들은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더욱 크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절제된 섹시함

지난해 6월 1집 타이틀곡 '기대해'로 섹시한 매력을 선보인 걸스데이가 '섬싱'을 통해 본격적으로 섹시 코드를 내세운다. '기대해'에서 발랄 댄스, '여자 대통령'에서 구미호춤 등 귀여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포인트 안무를 선보였던 걸스데이는 이번 활동에서는 의상부터 파격적인 변화를 줬다.

지난 3일 KBS2 '뮤직뱅크' 컴백 무대에서 붉은 드레스에 옆트임을 줘 드러난 각선미에 섹시한 매력을 자연스럽게 발산했다.

"이번 앨범에는 절제된 매력을 강조해 한층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과하지 않지만 안무와 뮤직비디오 등 전체적으로 섹시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안무를 구상했어요.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인 엄정화·박지윤 선배처럼 우리 역시 뒤를 이어 은근한 여성의 매력까지 겸들일 거예요."

자신들의 섹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맏언니 소진은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뒤태에 자신 있다"고 했고, 민아는 "다리가 제일 예쁘다"고 말했다. 혜리와 유라는 각각 '목선'과 '전신'을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로 꼽았다.

◆걸스데이와 이단옆차기 만남

버클리 음대 출신 마이키와 장근이로 이뤄진 이단옆차기는 지난해 씨스타의 '기브 잇 투미', 범키의 '갖고 놀래', 케이윌의 '촌스럽게 왜 이래' 등 10곡 이상의 히트곡을 만들어낸 정도로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자랑한다. 더불어 이단옆차기와 걸스데이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앨범을 준비했어요. 이단옆차기와 함께 작업하면서 음악적으로 한층 성숙해졌죠. 특히 '섬싱'은 멤버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다른 곡들에서도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곡을 만들어줬어요."

이번 앨범에는 '섬싱'을 비롯해 '쇼 유', '튀지 마' 등 4개의 신곡이 수록됐다. '섬싱'은 다른 여자에게 한눈팔며 거짓말하는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 생기는 미묘한 감정과 사건을 다룬 노래로 가성과 진성을 오가며 사랑에 아프고 사랑에 눈물 짓고 힘겨워하는 여자의 마음을 표현했다.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제공

멤버 섹시포인트? 소진 뒤태 꼽아
민아-다리, 혜리-목선, 유라-전신
"엄정화·박지윤 선배 뒤 이을게요"

◆올해 목표는 CF 20개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지만 "부담감보다 기대감이 크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들의 올해 목표도 당찼다. 걸스데이는 "지상파 3사 음악 순위 프로그램 1위와 화장품과 휴대전화·자동차·주류 등 20개의 광고를 촬영하는 게 올해 목표"라며 "TV만 켜면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다. 무엇이든 소화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지난해 '여자 대통령'으로 데뷔 3년 만에 SBS '인기가요' 7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걸스데이는 "이번에는 1위를 하면 즐겁고 특별한 세리머니를 하고 싶다"며 "사장님만 허락해주신다면 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물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걸그룹 중 1호로 컴백한 걸스데이가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으로 팬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병호 기자 ysw@metroseoul.co.kr·사진/박준지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3

너를 만나,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tvN 방송 / 2014년 1월 13일 첫방송

김소연 | 성준 | 남궁민 | 왕지원 | 알렉스 | tvN | JSpictures | 장영우 | 정현정

빅뱅 첫 삿포로 공연… 빈자리 없었다

4만5000여 현지팬 눈길 뚫고 객석 꽉 채워…열광의 180분 선사

빅뱅이 4일 삿포로 돔에서 ... 돔 투어 무대를 펼치고 있다(큰 사진). 삿포로 돔을 가득 채운 4만5000여 명의 관객이 빅뱅의 무대에 열광하고 있다(작은 사진).

빅뱅의 첫 일본 삿포로 공연을 보기 위해 4만5000여 명의 현지 팬들이 눈길을 뚫고 공연장에 운집했다.

일본 6대 돔 투어 '빅뱅 재팬 돔투어 2013~2014'를 진행 중인 빅뱅은 4일 여섯 번째 공연지인 삿포로 돔에서 무대를 열었다. 공연장을 꽉 채운 관객들은 처음 현지를 방문한 빅뱅을 환영하며 공연 시작 전부터 노래를 합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공연이 시작되자 빅뱅은 '하루하루'를 일본어 버전으로 부른 것을 시작으로 '마이 헤븐', 일본 레코드대상 최우수 신인상의 영광을 안긴 히트곡 '가라가라 고' 등을 불렀다. 이어 '판타스틱 베이비' '배드 보이' 등 히트곡을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연달아 선보이며 3시간 이상을 쉼 없이 질주했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를 비롯해 태양의 '링가링가', '당의' 등 대디 대성과 승리의 '윙스'와 '보쿠오 미츠메떼' 등 멤버들의 솔로 무대도 큰 환호를 받았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플라잉 스테이지와 무빙카를 타고 멤버들은 공연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등장하는 등 공연장 열기가 절정으로 달아올랐다.

빅뱅은 이에 보답하듯 앙코르 무대가 끝난 뒤 다시 앙코르 곡을 부르는 등 30여 곡을 선사했다.

지난해 11월 사이타마 세이부 돔을 시작으로 오사카·후쿠오카·나고야·도쿄를 거쳐 삿포로에서 돔 공연을 개최한 빅뱅은 오는 11~13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앙코르 피날레 무대를 열고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日·중화권 언론 윤아·수영 열애 집중보도

말띠 동갑내기인 소녀시대 멤버 윤아(사진 왼쪽)와 수영(오른쪽)의 열애 소식이 아시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윤아와 수영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배우 정경호와 각각 열애 중임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이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하듯 일본과 중화권 매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윤아와 이승기가 연애 중이다. 두 사람은 연기자로서도 정평이 나 있는 인물로 양측 소속사에서도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닛칸스포츠 역시 "수영과 정경호가 열애 중임이 발각됐다. 이는 윤아와 이승기의 열애 소식 이후 이어진 열애설이다"고 보도했다.

시나닷컴 등 중국 주요 언론은 소녀시대 멤버 수영 측과 정경호 측이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국 연예 매체는 이례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들의 연이은 열애 인정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정은균기자 ...

'발목 부상' 고아라 내일 프리허그 대신 사인회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히로인 고아라(사진)가 명동 사인회 공약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고아라는 7일 오후 2시 명동 롯데백화점 신관 정문 앞에서 선착순 100명의 팬들을 대상으로 사인회를 진행한다. 당초 드라마 시청률 10%를 넘을 경우 명동에서 프리허그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었으나 발목 인대 부상으로 서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 취소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드라마를 사랑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인회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응답하라 1994' 출연진은 방송 초반인 지난해 11월 1회가 시청률 7%를 돌파를 기념한 명동 프리허그 이벤트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유연석·정우·김성균·손호준 등이 약속 이벤트를 열어 일대 거리가 마비될 정도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한편 고아라는 이달 중 발목 수술을 받고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무대 '파워풀' 연출은 '원더풀'

김재중 부산 단독콘서트 개최…큰 함성에 무대마다 다른 의상 준비

JYJ 김재중(사진)이 데뷔 10년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그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4 김재중 1st 앨범 아시아 투어 콘서트 인 부산'을 개최하고 첫 전국투어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5일 "전국투어의 첫 공연답게 특별한 무대가 이어졌으며 부산 팬들은 매 곡마다 열화와 같은 환호로 공연장을 가득 채워 에너지 가득한 콘서트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김재중은 '9+1#' '버터플라이' 등 록은 물론 '나우 이즈 굿' '그랬지'와 같은 발라드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또 휘트니 휴스턴의 히트곡인 '아이 해브 나싱'을 폭발적인 고음으로 소화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특히 앙코르 곡을 제외한 모든 무대에서 새로운 공연 의상을 선보였고, 이전 공연과 다른 디자인의 스탠딩 마이크를 사용하는 등 섬세한 연출로 시선을 모았다.

이날 객석에는 연인은 물론, 모녀 팬과 부녀 관객이 상당수 눈에 띄는 등 첫 부산 공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김재중은 오는 11일 광주, 25~26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전국투어를 이어간다.

/유순호기자

'정도전' 톱스타·영웅담 없어도 통했다

촘촘한 스토리·연기 눈길 첫방송 시청률 11.6% 출발

MBC '기황후' 등 픽션 사극의 범람 속에서 정통 사극을 표방하고 나선 KBS1 '정도전'(사진)이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새 왕조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조재현)의 일대기를 그린 이 드라마는 4일 첫 방송에서 두 자릿수인 11.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분은 고려 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의 명운까지 위태한 난세의 현실과 그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해내려는 정도전의 투쟁을 그렸다.

대부분 픽션 사극처럼 톱스타들의 출연과 영웅담은 없었지만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의 구성과 촘촘한 스토리 라인, 조재현·박영규·김영철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극심한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기황후'를 향해 방영 전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했던 이 드라마는 이날 비교적 역사에 충실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정통 사극을 보게 돼 반갑다" "역사왜곡이 없어 아들과 함께 열심히 볼 수 있어 좋았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돋보였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탁진현기자 tak0427@

웃음·감동주는 '계획남'

film review

박○○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플랜맨

9일 개봉할 영화 '플랜맨'(사진)의 주인공 한정석(정재영)은 1분 1초까지 알람에 맞춰 사는 계획적인 남자다. 신호등 건너는 시간, 편의점 가는 시간 등 하루 일과를 오로지 알람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그는 단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더러운 것도 참지 못해 누군가와 포옹만 해도 득달같이 세탁소로 달려가기 일쑤다.

영화는 그런 그가 짝사랑하는 여인(차예련)에게 계획적인 면이 싫다며 퇴짜를 맞은 후 무계획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본격적인 내용이 전개된다.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주체 유소정(한지민)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정석의 삶은 점차 뒤바뀌어간다.

기존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독특한 캐릭터가 신선하나, 본인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 캐릭터가 무계획적인 삶을 사느라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에서 수시로 웃음이 '빵' 터진다.

약 한 달 전 개봉된 영화 '열한시'에서 시간 이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 우석 역을 맡아 선 굵은 모습을 보여준 정재영은 이번엔 지질해 보일 수 있는 한정석을 실제 인물인 것처럼 능청스럽게 연기해 웃음 강도를 높인다.

그룹 UV가 만든 개성 강하고 신나는 삽입곡은 유쾌한 분위기를 더한다. 인기 밴드 보컬인 유소정이 들려주는 한정석에 대한 이야기인 '플랜맨' 제목만큼 가사도 독특한 '개나 줘버려 삼각김밥' 유부남' 이 영화 속 코믹한 상황과 어우러져 영화 전반에 흐른다.

한지민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즐거리다. 평소 청순가련하고 단아한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이번 작품에서 발랄하게 기타를 치면서 직접 노래까지 부른다. 썩 잘 부르지는 않지만 자유분방한 매력을 잘 살렸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에 접어들며 웃음이 뚝 끊기고 무거운 분위기로 반전된다. 계획남으로 살아야 했던 한정석의 비극적인 과거가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과거가 너무 무거워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나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계획적인 삶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리는 주인공처럼 영화라면 반드시 감동과 눈물을 줘야 한다는 강박에 비극적인 과거를 넣은 건 아닌지 조금 아쉽다.

그럼에도 아픔을 가진 한정석이 사람을 통해 치유해나가는 모습은 힐링을 선사한다. 새해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면 친구나 연인과 함께 보기에 적당한 영화다. 15세 이상 관람가.

'패션왕' 주원 고교생 변신

설리·김성오 등과 호흡

영화 '패션왕'이 핫스타들로 라인업을 확정했다.

앞서 캐스팅을 확정한 주원(사진)·설리·김성오에 이어 박세영과 안재현 등 다방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신세대 스타들이 출연을 확정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 '패션왕'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기로 결심한 고교생 우기명(주원)의 이야기를 그린다. '선물' '작업의 정석' 등을 연출한 오기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박세영은 우기명의 마음을 빼앗는 '얼짱 소녀' 혜진을, 안재현은 우기명과 헤쳐된 경쟁을 펼치는 원호를 연기한다. 특히 안재현은 SBS '별에서 온 그대'에 주인공 천송이(전지현)의 남동생으로 출연하고 있는 배우로 이번 작품으로 스크린 신고식을 치른다. 설리는 우기명을 짝사랑하는 은진, 김성오는 우기명에게 패션을 알려주는 남정을 연기한다.

영화는 이달 중 크랭크인해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박○○ 기자 [illegible]

HER NEXT GREAT LEAP

김윤진 NYT '인사이드 코리아' 섹션 장식

배우 김윤진(사진)이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인사이드 코리아' 섹션에 소개돼 한국 사랑을 과시했다.

신문은 3일(현지시간) '그녀의 다음 큰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올여름 미국 ABC방송 드라마 '미스트리스(Mistresses)' 시즌2 방송을 앞둔 김윤진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인터뷰에서 김윤진은 "10세 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했는데 부모는 우리 자매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잊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즌2를 시작하는 소감과 한국 드라마 '나인'의 미국 리메이크에 기획 프로듀서로 참여하게 된 계기 등을 밝혔다.

'미스트리스'는 대학 시절 만난 네 친구가 30대에 겪는 사랑과 우정을 그린 드라마로 김윤진은 유부남을 사랑하는 정신과 의사 카렌 김 역을 맡고 있다. 김윤진은 이달 말 이 드라마의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선원 기자

'덥스텝계 아이돌' 블레이크 내한 공연

19일 광장동 유니클로악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블레이크(사진)가 오는 19일 광장동 유니클로악스에서 첫 단독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2012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처음 내한해 한국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블레이크는 실내 공연장에서 단독 공연을 열고 더욱 깊은 감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블레이크는 덥스텝을 기반으로 클래식·R&B·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몽환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덥스텝계의 아이돌'로 불리고 있다. 2011년 데뷔 앨범 '제임스 블레이크'와 지난해 두 번째 앨범 '오버그로운'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1년 'BBC 사운드 오브 2011'을 수상한 바 있는 블레이크는 지난해 10월 영국 록밴드 악틱 몽키스, 영국 글램록의 선구자 데이비드 보위 등 세계적인 뮤지션과 경합 끝에 '2013 머큐리 프라이즈 올해의 앨범'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는 신작 '오버그로운' 수록곡 위주로 꾸밀 예정이다. 문의 1544-1555

/유순호 기자 [illegible]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 주지사 출마 '만지작'

할리우드 액션 스타 스티븐 시걸(사진)이 애리조나주 주지사 출마를 검토 중이다.

그는 4일(현지시간) KNXV-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출연한 신작 리얼리티 프로그램 '스티븐 시걸 로맨 마리코파 카운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주에서 가장 높은 공직에 도전해보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시걸은 액션영화 '언더 씨즈' '죽음의 표적' '복수무정' 등에 출연해 한국 팬들에게 잘 알려진 배우다. 신작에서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보안관 조 아파이오와 함께 출연했다.

한편 앞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2003~201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다. /박선원 기자

김연아가 5일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14'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종후한 탱고곡인 '아디오스 노니노'에 맞춰 매혹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판타스틱' 연아 적수가 없다!

국내 고별무대서 역대 두번째 높은 227.86점 우승… 점프도 '완벽' 소치올림픽 금메달 기대감 높여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역대 개인 통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소치 동계올림픽 리허설을 완벽히 마쳤다.

김연아는 5일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14'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0.05점과 예술점수(PCS) 77.21점을 합쳐 147.26점을 기록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80.60점으로 개인 최고 성적을 거둔 김연아는 종합 227.86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 성적은 4년 전 밴쿠버 올림픽에서 작성한 개인 최고 기록(228.56점)에 0.70점 모자란 점수로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절정의 컨디션을 확인했다.

국내 대회 성적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공인하는 점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정상의 기량으로 적수가 없음을 알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록한 147.26점은 밴쿠버 올림픽(150.06점)과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148.34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점수다.

또 올림픽 2연패 도전을 선언한 이후 출전한 2012년 NRW 트로피(201.61점), 지난해 1월 전국 종합선수권대회(210.77점), 3월 세계선수권대회(218.31점), 12월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204.49점)에 이어 다섯 대회 연속 200점대를 기록하는 기복 없는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달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첫선을 보인 프리스케이팅 수제곡 '아디오스 노니노'를 이번 대회에서 보다 완벽하게 다듬었다. 지난 대회에서 넘어지는 실수를 저지른 첫 번째 과제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을 깔끔하게 성공시킨 데 이어 트리플 플립과 트리플 살코-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완벽하게 이어갔다.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로 이어지는 마지막 연기에서 더블 루프를 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플라잉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10%의 가산점이 붙는 트리플 러츠 점프 등을 깨끗하게 소화하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한편 이날 경기가 열린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는 국내에서 김연아가 펼치는 마지막 연기를 보기 위한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지난달 27일 예매 15분 만에 입장권은 매진됐고,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이날 오전부터 빙상장 앞에 몰려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장소호기자 sun@metroseoul.co.kr

"한국 러시아와 비기아 월드컵 16강 진출 기회"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영웅 거스 히딩크(68·사진) 감독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전망을 내놨다. 한국 팀의 16강 진출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공간'이다.

무릎 수술차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히딩크 감독은 "한국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첫 상대인 러시아와 최소한 무승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러시아는 쉽지 않은 상대"라며 "전체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등에서 활약한 경험 많은 선수들이 포진했고 러시아 팀 자체도 월드컵 등 국제 무대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면 러시아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물론 한국은 승리를 목표로 하되 최소한 비기려고 해야 한다. 첫 경기에서 지지 않는 것은 언제든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16강 진출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히딩크 감독은 러시아 대표팀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로축구 안지 마하치칼라를 이끈 경험이 있어 러시아 축구에 정통하다. 홍 감독은 지난해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지내고서 히딩크 감독이 있던 안지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기도 했다.

/정성일기자

日 투수 다나카 영입전 ML 7개 구단 경합할 듯

일본 괴물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26·사진)의 영입을 원하는 미국프로야구 구단이 7개로 좁혀졌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5일 "메이저리그 7개 구단이 다나카 영입에 나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다나카의 포스팅 비용 상한선이 2000만 달러로 정해지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부담이 줄었고 미국 언론은 30개 구단 모두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다나카의 에이전트 케이시 클로즈가 공표한 협상 시작일(7일)이 다가오자 실질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구단은 현저히 줄었다.

산케이스포츠에 따르면 선발 투수 보강에 뜻이 없는 보스턴 레드삭스, 추신수 영입으로 거액을 쓴 텍사스 레인저스 등 유력 구단들이 영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뉴욕 양키스, 시애틀 매리너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LA 에인절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이 다나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중 영입 유력 1순위는 시애틀로 꼽혔다.

/유순호기자

벤슨 더블더블…모비스 선두 반게임차 추격

울산 모비스가 인천 전자랜드를 꺾고 선두 경쟁에 나섰다.

모비스는 5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전자랜드를 83-63으로 물리치고 홈경기 8연승을 이어갔다. 모비스는 이날 승리로 22승9패를 기록, 22승8패를 기록 중인 선두 SK에 반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4일 LG를 꺾으며 15승15패로 5할 승률을 달성했던 전자랜드는 이날 경기에서 패하며 하루 만에 5할 승률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모비스는 이날 출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연승을 거뒀다. 로드 벤슨이 17득점 11리바운드로 골밑을 지배했다. 외곽에서는 양동근이 10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의 만점 활약을 펼쳤고, 이대성이 11득점, 문태영이 7득점, 박종천이 8득점을 기록했다. 양동근은 이날 경기에서 역대 11번째 개인 통산 600스틸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서울에서는 서울 삼성이 이동준의 활약에 힘입어 전주 KCC를 상대로 80-71 역전승을 거두고 홈 3연패에서 탈출했다. 이날 이동준은 23점을 넣으며 공격의 선봉에 섰고 존슨이 15점, 차재영이 11점으로 거들었다.

반면 KCC는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며 4연패에 빠졌다. 4연패를 당한 KCC는 12승19패가 되며 공동 7위에서 8위로 내려앉았다.

또 고양 오리온스는 창원 LG를 82-75로 꺾고 중위권 경쟁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성일기자

프로농구 전적 5일

모비스	24	17	26	16	83
전자랜드	15	11	18	19	63
삼성	22	11	20	27	80
KCC	18	24	16	13	71
오리온스	19	24	18	21	82
LG	13	16	16	27	75

아가메즈 39점 '원맨쇼'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잡고 단독선두 올라

현대캐피탈이 라이벌 삼성화재를 제압하고 7연승의 파죽지세를 이어갔다. 이날 승리로 현대캐피탈은 선두 자리에 올랐다.

현대캐피탈은 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NH농협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39점을 올린 외국인 선수 리버맨 아가메즈의 맹활약에 힘입어 3-1로 승리했다. 7연승을 달린 현대캐피탈(승점 35점)은 선두 삼성화재(승점 33점)를 2위로 끌어내리고 단독 선두 자리에 올랐다.

시즌 초반이던 지난해 11월 23일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이후 삼성화재에 1위를 내준 현대캐피탈은 43일 만에 요직수를 제물로 1위를 탈환해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반면 여자부에서는 IBK기업은행이 KGC인삼공사를 3-0으로 누르고 선두를 질주했다. /정성일기자

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NH농협 V리그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 현대캐피탈 아가메즈가 득점에 성공했다는 눈손짓을 하고 있다. 뒤쪽은 문성민 /연합뉴스

프로배구 전적 5일

삼성화재	1	3	현대캐피탈
인삼공사	0	3	기업은행

희망서울 서울특별시

시민청 귀 빠진 날?

"시민이 청장입니다"
시민청 돌잔치

기　간 2014.1.11(토)~1.31(금)
내　용 토크콘서트, 시시콜콜 음악회, '서울을 보다'기념전, 각종 이벤트 등
장　소 서울시청 지하 1·2층 시민청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문　의 ☎ 02-120
운영시간 09:00~21:00 (매주 월요일 휴관)

시민 누구나 전시, 공연, 토론 등 대관 가능
*인터넷 검색창에 시민청 을 검색하세요